

광주시 의료관광 인프라 광역시중 골짜기

지난해 외국인 환자 28만명 중 광주서 진료 고작 2000명

조례·전담인력·기관 광주만 없어... '돈 주고 환자 유치' 비난

의사 출신의 시장이 당선되면서 광주가 의료관광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의료관광 인프라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뒤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인원이 없는 데다, 지원 근거가 될 조례도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고작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게 '외국인환자를 1인당 10만원을 주고 시오겠다'는 것이어서 의료계와 지역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에게 환자가 1박 이상 숙박하고 진료를 받으면 1인당 최대 10

만원을 지원한다고 내놔다. 또 유치 인원에 따라 해외 홍보비를 최대 600만원(500명 유치)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간 '환자유치 인센티브'를 시범운영한 결과, 유치업자에게 300만원을 투자해 100여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성과를 내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지역사회는 광주시가 체계적인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이 아닌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의료관광 인프라가 뒤쳐진 것으로 드러났

다.

지자체 내 전담조직과 전담인원이 광주시만 없다. 대구의 경우 2개팀(의료관광팀·의료서비스팀) 10명, 부산도 2개팀(의료관광팀·의료협력팀) 8명, 대전 1개팀(의료관광팀) 4명이 의료관광사업을 맡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또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나 의료관광사업단 등 사업을 주도할 외부 전담기관도 광주만 갖춰져 있지 않다.

지원 근거가 될 조례도 광주만 없다. 부산이 2009년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대구·인천·대전은 2011년 제정한 것과 비교하면 광주는 5년 이상 뒤쳐졌다.

미흡한 의료관광 인프라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서 확인하게 드러난다.

광주의 외국인환자 유치는 전국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28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광주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2000명가량에 그쳤다. 이는 2011년 1118명(전국대비 0.9%), 2012년 1648명(1.0%), 2013년 1900명(0.9%), 2014년 1850명(0.7%) 등 해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산은 2014년 1만3717명, 인천 1만7701명, 대구 9871명, 대전 7047명으로 광주보다 3배~7배이상 웃돌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대병원 등 광주는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전국대비 1%에도 미치지 않는 등 미미하다"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타지역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옛 도청건물 5·18 흔적 복원하라” ‘5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5·18 탄흔이 형태도 없이 지워졌다. 역사적인 장소를 보존하고 복원하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중·고교 교사되기 더 어려워진다

교육부 45개 사범대 평가 C등급 이하시 양성 정원 감축 전남대·조선대·목포대·순천대 대상...전체 3220명 줄어

전남대·조선대, 목포·순천대 교직 과정 정원이 줄어들게 됐다. 그만큼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얻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사범·교육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62개교 206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교육과정 등을 평가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를 거쳐 C등급을 받는 기관의 경우 정원을 30%, D등급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E등급은 아예 해당 기관을 폐지한다.

45개교를 대상으로 한 사범대 평가에서 전남대·조선대 등 16개교(36%)가 A등급을 받았고 목포·순천대 등 23개교(51%)는 B등급을 받았다.

사범대 설치 학교 중 교직 과정을 운영하는 일반학과를 둔 51개교 중에선 45개

교가 무더기로 C, D등급을 받아 정원을 줄이게 됐다. 광주·전남에서는 목포·순천·전남·조선대 등 4곳이 포함돼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전남대의 경우 143명의 정원 중 30%, 조선대도 275명의 30%를 감축해야 해 신입생들의 교직 과정 이수도 더 힘들어지게 됐다. 교원양성 기능이 있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순천·전남대 등 24개 학교는 C등급을 받았다. 목포대는 D등급을 받아 교원양성 정원을 50% 줄여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광주교육대는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대상 대학의 중등교사 양성 정원이 2만1530명에서 1만8310명으로 3220명(교직과정 1368명·교육대학원 1434명)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 정원 감소폭(2802명)이 사범·일반대 교육과 정원 감소폭(418명)보다 커 비사범대 학생의 중·고교 교사 자격 취득이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사범대가 없는 대학 107개교를, 2017년에는 전문대 등 126개 학교를 평가, 정원 감축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정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

음주 단속 0.05%→0.03%

경찰, 처벌 강화 여론 수렴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해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연남뉴스

오늘의 날씨

강동 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고 쌀쌀 하겠다.

광주	5/14	보성	차차말아짐	2/14
목포	4/10	순천	차차말아짐	6/17
여수	7/15	영광	차차말아짐	3/10
나주	3/15	진도	차차말아짐	3/11
완도	4/13	전주	차차말아짐	4/14
구례	3/17	군산	차차말아짐	4/12
강진	4/14	남원	차차말아짐	4/16
해남	3/13	홍산도	차차말아짐	5/17
장성	3/13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남부	남해	북서~북	1.0~2.0	북서~북	2.0~4.0
남해	서부	북서~북	0.5~1.0	북서~북	1.0~2.0
서부	남해(동)	북서~북	0.5~1.5	북서~북	1.5~3.0
남해(서)	북서~북	1.0~2.0	북서~북	2.0~4.0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피부질환	낮음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	☀	☀	☀	☀	☀	☀
1/14	1/13	1/14	1/15	3/16	5/16	6/17

4월 한달은 세월호 참사 추모기간

광주·전남교육청 SNS 추모관 운영·리본만들기 등

광주·전남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학교별로 계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추념(追念)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오는 1일부터 4월 한 달을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추념 활동 등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교육청 본청 과장급 간부 등 50여명은 세월호 참사 2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현장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직원들도 세월

호 2주년을 앞두고 팽목항 방문을 계획 중이다.

시교육청은 또 4월 한 달간 시교육청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추모관을 운영하면서 세월호 2주년 리본·UCC 만들기, 참여서 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4·16 세월호 참사 추모 및 학생 안전'을 주제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동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9일), 세월호 참사 관련 전시회 등도 벌일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가 되길 바라는 형태의 토크 콘서트를 김대중센터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서구, 6월부터 '여성안심숙박서비스'

광주시 서구는 오는 6월부터 여성안심 숙박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안심 숙박서비스는 여성·가족 우선룸 운영, 외부 대실 공지 금지, 여성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여성이나 가족들이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선정해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도록 돕는 숙박서비스다.

서구는 이를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관내 모텔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현장을 둘러본 뒤 6월께 2~3곳의 모텔을 여성안심 숙박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과 부차, 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 및 관급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